

한일銀 출신 회장에 ‘상업’ 행장… 조직안정·M&A ‘과제’

차기 우리은행장에 권광석 내정

은행 IB·해외IR 부문 잠뼈
글로벌 공략 최적임자 꼽혀

임추위, 지주사-은행 소통
손태승 회장과 시너지 기대

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
대표이사가 차기 우리은행장의 최종 후
보로 낙점됐다.

우리금융지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(이하 임추위)는 11일 김부문장과
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
표, 이동연 우리FIS 대표이사 등 최종
면접 대상자 3인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
시한 후 권 대표를 최종 행장 후보자로
추천했다.

권 대표는 1963년생으로 1988년 우
리은행에 입행했다. IB그룹 겸 대외협
력단 집행부행장을 역임한 후 우리PE
대표이사를 거쳐 현 새마을금고중앙회
신용공제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며, 과거
우리금융지주에서 전략·인사 등 주요
업무를 두루 수행한 점과 은행의 IB업
무와 해외IR 경험을 바탕으로 은행의
글로벌 전략 추진에 최적임자라는 점을
임추위로부터 인정 받았다.

◆**손 회장과 시너지… 조직 안정화 과제**
올해 우리은행장의 역할은 그 어느 때
보다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우선 파생결합펀드(DLF) 사태에 따른



서울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.

른 금융당국 제재심으로 어수선해진 조직을 안정화하는 일이 급선무다.

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30일 DLF 제
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, DLF 사태
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
에게 중징계인 ‘문책경고’를 내렸다. 금
융사 임원이 이 같은 중징계를 받으면
3~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. 지난
6일 우리금융이사회가 손 회장의 연
임을 지지한 만큼, 손 회장은 연임을 위
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
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.

치열해진 금융권 경쟁에서 주도권을
빼앗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.

향후 우리은행은 비은행 부문 강화를
위한 인수합병(M&A) 및 글로벌·디지
털 전략 추진 등 산적한 난제들이 있다.

이를 해결하기 위해 손 회장은 차기 우리
은행장 자리에 영업력·추진력 등에서 높
은 역량을 가진 ‘젊은 피’를 수혈해 세대
교체를 해야 한다는 의중을 내비쳐 왔다.

업계 안팎에서는 손 회장과 호흡을
맞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인물을 뽑았
다는 해석이 나온다.

손 회장은 우리금융의 완전한 민영화
및 증권·보험사 인수합병(M&A) 등을
통한 사업의 다각화에 주력하고, 신임
행장은 고객중심 경영과 영업력 강화에
전념하게 한다는 구상이다.

임추위는 “권 대표가 우리금융지주
설립 후 처음으로 회장과 은행장을 분
리해 운영하는 현 상황에서 지주사와
은행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시너지를
창출하고, 은행의 조직안정화 및 고객
중심 영업을 바탕으로 뛰어난 성과를
창출하기를 기대한다”고 전했다.

◆‘강한 추진력’·‘상업은행 출신’ 이점

업계 안팎에서는 권 대표의 강한 추진
력이 이점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.

권 대표는 면접 당시 고객 중심 경영

을 통한 고객 신뢰 회복·내실 경영·위험
가중자산 관리 및 신규 사업 기회 발굴
을 통한 경영 효율화 등 경영 전략을 제
시했다. 임추위 위원들도 권 대표의 경
영 전략과 조직 구성원과의 소통과 화합
을 강조한 경영 철학을 높이 평가했다.

우리은행 관계자는 “향후 조직 안정화
와 M&A 등 산적한 과제 속에서 손 회장
과 함께 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인물인
권 대표를 뽑았을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

우리은행은 행장 선임 때마다 거론됐던 한
일·상업은행 간 ‘출신 경쟁’도 영향을

미친 것으로 풀이된다.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출신이 번갈아
가며 행장을 맡아온 우리은행의 관행
상, 상업은행 출신인 권 대표가 차기 행
장을 맡게 될 거라는 시각이 맞아떨어
졌다. 앞서 행장을 맡았던 손 회장은 한
일은행 출신이다.

임추위는 우리은행 이사회를 거쳐 오
는 3월에 열릴 주주총회에서 행장을 최
종 선임할 예정이다. 행장 선임에 대한
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
6일과 22일, 28일 세 차례에 걸쳐 위원회
를 개최하고 후보군에 대한 단계별 검증
절차를 밟았다. 임추위는 위원장인 손
회장과 노성태·박상용·정찬형·전지평·
장동우 등 5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됐다.

한편 우리금융 그룹 임추위는 자회사
6곳에 대한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실시
했다. 우리종금 대표이사에 김종득 현 우
리은행 자금시장그룹 집행부행장보를,
우리신용정보 대표이사에 조수형 현 우
리은행 소비자브랜드그룹 집행부행장보
를, 우리펀드서비스에 고영배 현 우리은
행 신탁연금그룹 상무를 신규 선임했다.

정원재 우리카드 대표이사와 이동연
우리FIS 대표이사, 최광해 우리금융연
구소 대표이사는 연임됐다.

/홍민영 기자 hong93@metroseoul.co.kr

‘기생충’ 투자 우리·기업銀 수익·홍보효과 ‘봉 잡았다’

우리 12억 간접투자, 기업 1.2억
“엔딩크레딧에 이름 올라 뿐”
북미 상영관 2000개 이상 확대

영화 ‘기생충’이 아카데미 시상식에
서 4관왕을 차지하면서 금융권도 웃음
이 번지고 있다. 이 영화에 투자한 우리
은행과 IBK기업은행이 흥행 수익은 물론
홍보 효과까지 누리고 있어서다.

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
‘우리은행-컴퍼니케이 한국영화투자
펀드’를 통해 기생충에 12억원을 간접
투자했다. 총 120억원 규모의 이 펀드는
우리은행이 중견 벤처캐피탈 컴퍼니케
이파트너스와 손잡고 지난 2017년 3월
결성한 한국영화 전문투자 펀드다.

우리은행이 30억원을 출자했고, ‘기
생충’의 투자·제작을 맡은 CJ ENM을
비롯한 국내 메이저 투자 배급사도 출
자에 참여했다.

한국영화투자펀드는 그동안 ‘극한직
업’, ‘엑시트’ 등 출자에 참여한 투자·배
급사가 배급한 한국영화에 투자해 왔다.

덤으로 얹어진 홍보효과도 작지 않다.
우리은행 관계자는 “영화가 끝나면
엔딩 크레딧에 ‘우리은행’ 이름이 올라
가 전 세계 관객에게 우리은행의 이름
을 알리는 홍보 효과도 봤다”고 말했다.

기업은행도 ‘IBK금융그룹과 유니온
콘텐츠투자조합’을 통해 간접투자 방식

으로 투자에 참여했다.

투자조합은 총 100억원 규모로 기업은
행이 30억원, IBK캐피탈이 40억원을 출
자해 결성됐다. 조합이 기생충에 투자한
금액은 4억원으로, 출자지분을 고려하면
기업은행과 IBK캐피탈의 투자액은 각
각 1억2000만원, 1억6000만원이다.

기업은행은 2012년 국내 금융권에서
처음으로 문화콘텐츠 전담부서를 만들
어 영화, 드라마, 공연 등에 대출이나
투자의 방식으로 지원해오고 있다. 총
지원 규모는 2조7000억원에 이른다. 최근에는 애니메이션, 캐릭터, 게임, 웹콘
텐츠 등으로 장르를 확대하고 있다.

기업은행 관계자는 “작품 시나리오
를 받으면 작품성과 대중성, 감독과 출
연 배우의 역량, 개봉 시기, 경쟁작, 시
장 반응 등을 항목별로 나눠 내부 논의
를 거치고 외부 전문가 의견도 참고한
다”고 말했다.

‘기생충’은 이미 2000억원에 가까운
수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. 영화관
입장권 매출을 합계하는 사이트 박스오피
스모조에 따르면 ‘기생충’은 전 세계
에서 1억6542만달러(약 1959억7000만
원)의 티켓 매출을 올렸다.

여기에 북미에서만 상영관 수가 현재
1060개에서 이번 주말에 2000개 이상으
로 확대되는 등 흥행 가도가 이어질 전
망이다. /연합뉴스·홍민영 기자



One Shinhan
고객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



Shinhan
미래를 함께하는
따뜻한 금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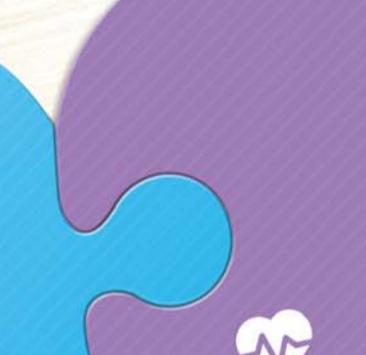
진심을 품은 종신보험

(무배당,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)

어려울 때 더 큰 힘이 되고 싶은
진심으로 꽉 채웠습니다

경제활동기부터 은퇴 후 노후생활까지
사망보장과 생활자금을 균형적으로 보장설계 가능





• 이 상품의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30%형 및 50%형은 “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”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일반형 100%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반형 100%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종신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형태입니다. • 이 상품은 「위진심을품은종신보험—6대질병플러스특약」, 「가입시 진심을품은종신보험—무배당,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」으로 가입되며, 「무진심을품은종신보험—6대질병플러스특약」은 「무(무)6대질병납입면제특약」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. • 「무(무)6대질병납입면제특약」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「유방암 및 전립선암, 이외의 일, 뇌출혈(재해로 인한 뇌출혈 제외), 급성심근경색증, 팔/간질환 또는 말기만성폐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주계약 및 비강신형 특약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해 드립니다. 단, 6대질병 진단시 소멸되는 특약은 제외함. ※ 단,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불효로써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전에 「유방암 및 전립선암, 이외의 일」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. ※ 「유방암 및 전립선암, 이외의 일」은 「유방암, 전립선암, 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대장침출나방암 및 비침출방광암 제외함」. ※ 제3부모임 및 경계성종양은 본래 암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. ※ 아차성 암은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병리를 기준으로 보장합니다. •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,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•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자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“최고 5천만원”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밭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.

• (일반사망보험금은 고액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.)

•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,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•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자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“최고 5천만원”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밭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.

• 상기 내용은 오약된 것으로, 기업 전에 반드시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‘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9-01620(2019.05.14)’

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보험 